

번호 15-3

제 목	국문	양한방 상호보완에 관한 의사 및 의과대학생간의 인식도 차이			
	영문	Cognitive Discrepancies of the Mutual Development Strategies of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in Korea - A Comparison between medical practitioners and medical college students -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박종구, 김춘배, 조경소, 최서영 <sup>1)</sup> , 이종찬 <sup>2)</sup> , 김남송 <sup>3)</sup> , 정상혁 <sup>4)</sup> , 박웅섭 <sup>4)</sup>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하나한방병원 <sup>1)</sup>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sup>2)</sup>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3)</sup>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4)</sup>			
	영문	Jong Ku Park, Chun Bae Kim, <u>Kyung Sook Cho</u> , Seo Young Choi <sup>1)</sup> , Jong Chan Lee <sup>2)</sup> , Nam Song Kim <sup>3)</sup> , Sang Hyuk Jung <sup>4)</sup> , Woong Sub Park <sup>4)</sup>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Hana Oriental Hospital<sup>1)</sup>, Department of the History of Medicin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sup>2)</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up>3)</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up>4)</sup></i>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 환 경 (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1월				
<p><b>1. 연구 목적</b> 이 연구는 의사 및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양한방 상호보완에 관한 인식도의 차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향후 양한방 상호보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p> <p><b>2. 연구 방법</b> 이 연구의 설문지는 국내 양한방 협진 또는 일원화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1999년 10월에 워크숍(workshop)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1999년 11월에 30명에게 사전조사(pre-test)하여 파악된 문제점을 기초로 최종 수정하였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설문지의 직접배포에 의한 조사,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우편 설문조사를 혼용하였으며, 총 2,039명에게 배부되어 최종분석에는 206명(회수율: 10.1%)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3개 의과대학의 본과 2, 3, 4학년을 전수로 표본 추출하여 2000년 2월부터 3월까지 직접배포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660명에게 배부되어 최종 분석에는 496명(회수율: 75.2%)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SPSS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math>\chi^2</math>검정,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되 의사는 임상 의사와 기초의학전공자(예방의학 포함)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p>					

### 3. 연구 결과

첫째, 양한방 상호보완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를 질문한 결과, 기초의 67.2%, 임상 의 52.4%, 의대생 53.5%가 찬성하였다.

둘째, 양한방 상호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집단 모두 '의학과 한 의학간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를 꼽았으며, 양한방 상호보완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선행 요건으로 임상 의와 기초 의는 '교육제도의 보완'을, 의대생은 '양한방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꼽았다.

셋째, 가장 바람직한 양한방 상호보완 체계에 관하여 기초 의, 의대생, 임상 의 각각 50.8%, 47.6%, 35.3%가 '양방위주, 한방 보조의 협진체계'를 가장 선호하였다.

넷째, 양한방 상호보완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세 집단 모두 '협진 의료 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꼽았다. 진료 측면의 개선 방안으로 세 집단 모두 '진료방법의 상호 보완을 위한 협동연구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교육제도 개선방안으로 세 집단 모두 '기존 체계 하에서 개선'이 '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 의와 임상 의는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의대생은 '상대 의료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세 집단 모두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에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 4. 고찰

이 연구는 양한방 상호보완에 관한 인식도의 차이를 의사(임상 의, 기초 의) 및 의대생간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 기초 의가 임상 의와 의대생에 비해 양한방 상호보완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세 집단 모두 의사 중심의 양한방 상호보완 체계를 선호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의사의 경우, 조사방법은 낮은 설문 응답률을 감안하여 직접배 포에 의한 조사, 이메일을 통한 조사, 그리고 우편조사로 다각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지 회수율이 10.1%로 낮아서 연구결과의 대표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과대학생의 경우도 비확률 표본추출로 인한 연구결과의 대표성 문제 및 기존 교과목내 '한의학개론' 등을 이수해야 하는 의과대학이 포함되지 않아 학교간 변이가 개재되어 있을 수 있다.